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

성경말씀: 고전15:9-10

은혜(Grace):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아이 이름으로도 가장 좋은 이름 중 하나

170회(창6:8; 계22:21 마지막 절), 누가복음 1회, 요한복음 4회, 사도행전 10회, 바울 서신 99회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사도, 은혜를 확실히 체험한 사람, 은혜의 복음만 전함.

사도 바울: 사울, 다소 출신 바리새인, 율법학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유대인들이 행7장에서 스테반을 죽일 때 무리들의 옷을 맡아주고 그의 죽음에 동의함(행8:1, 3).

행9:1 위협과 살기를 내뿜음,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남(3-6), 아나니아의 딸(13-14), 주님의 딸(15),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자마자 즉시 회당들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함(19-21). 다마스쿠스 유대인들이 당황함(22)

그때부터 그는 약 30년 동안 온 세상에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선포함(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 행20:20-21)

오늘의 말씀 모티브, 두 주전 자매님들의 -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 바울의 고백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값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

말씀 설명

고전15장은 부활 장, 58절을 할애하여 성도들의 부활 설명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구원을 받았다.

그 복음의 핵심은 3-4절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사람이 증언한다. 베드로, 열두 제자, 주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나 바울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나는 누구냐? 모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일하던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악랄하게 조직적으로 핍박하던 자다.

예수님을 모욕하며 신성모독하던 자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시8:3-4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신실하게 여기고 사역자의 길을 가게 하셨다.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딤후1:12-15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

바울이 이중의 한 사람, 우리가 이중의 한 사람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막2:17). 이것이 은혜이다.

얼마나 좋은가?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죄인인가?

그를 불러 은혜의 경륜, 분배사역을 맡기셨다(엡3:2).

바울은 심지어 사례비를 받는 것도 마다하였다. 혹시라도 복음 사역에 누가 될까봐(고전9:12)

고전9:16-17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청지기(벧전4:10)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교회, 아이들 양육, 은혜의 복음 선포, 미디어 사역, 좋은 교회를 남겨주어야 한다.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 ‘합당치 못한 자가 받는 호의’, ‘당치 않은 친절, 과분한 친절,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주어지는 친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 죄인만 받는다. 죄가 많을 수록 은혜가 크다. 큰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섬긴다.

딤후3:3-8 설명

과거의 나,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의 미래

은혜의 통로

이 모든 복이 어떻게 가능한가?

고후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요함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롬5:6, 8).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희생에 대만족해하신다.

단번 속죄(히10:11-14)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졌으므로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불필요(히10:18)

은혜의 최종 목표

이런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때가 있다(계21:1, 5-6)

다가오는 미래의 영원이 있다.

여기는 죄와 부패와 사망을 겪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전 15:50).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썩지 않는 몸을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벧 후1:3-4). 재림 전에 죽으면 부활, 살아 있으면 휴거, 이게 은혜다.

지금은 우리가 다 마귀의 눈에 찌질이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다시는 눈물이 없다. 병이 없다, 죄가 없다, 늙는 게 없다, 사망이 없다, 돈 걱정/자식 걱정 없다, 교회 걱정, 예배 걱정 없다(계21:4).

완벽함이 거하는 때가 오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것이 고전15:10의 의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결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가?

이 고백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